

창립 56돌 ... 3천여 회원 상시 활동 대한금속·재료학회



南壽祐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대한금속·재료학회는 1946년 4월 10일 중앙공업연구소 회의실에서 10여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통과시킴으로써 정식 발족하였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고, 국내에서는 금속공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이었음에도 학회 명칭을 대한금속학회로 정하여 출발한 이래 금년에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공학분야 학회 중 제일 역사가 길고, 가장 학술활동이 왕성하며 상시 활동회원 규모가 3천여명인 가장 활성화 된 국내학회 중의 하나이다.

본 학회는 1963년에 이르러 학회 논문집인 「금속학회지」를 계간으로 발간하여 본격적인 학술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에는 제1회 학술강연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75년에는 과학기술처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1988년에

는 산업계 회원을 위하여 출판되는 현재의 「재료마당」의 전신인 대한금속학회보를 창간하였으며, 1995년에는 국제적 학술지인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논문집인 「대한금속·재료학회지」를 월간으로, 영문지를 격월간으로 그리고 기술해설지인 「재료마당」을 연 8회 발간하고 있다. 1999년에는 50여년간 사용하던 대한금속학회의 학회 명칭을 대한금속·재료학회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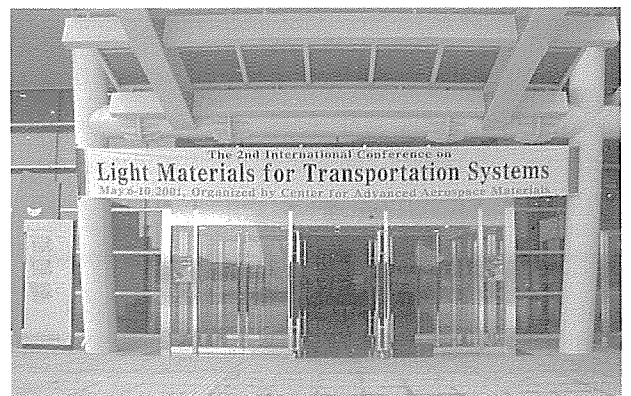
학술대회 논문 5백여편 발표

현재 학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각각 약 7백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각 5백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12개의 세부 분과별로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지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빙하여 총회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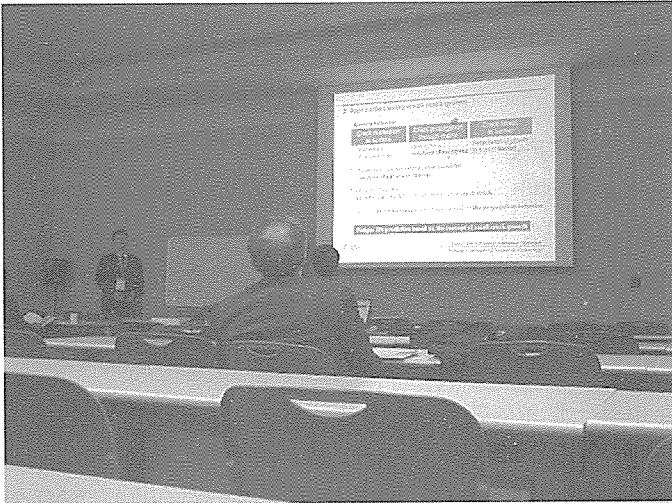
술발표대회에서 강연 뿐 아니라 포스터 발표를 장려하여 현재에는 약 1백50편에 이르는 포스터를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일찍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0년 대만의 중국광야공정학회 그리고 1983년 일본금속학회와 국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대표자 파견 등 협력사업을 실시하던 중 1999년부터 일본금속학회와는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 위하여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의 학회 주요 업무 방향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10여개 재료관련 학회의 모체로서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하여 당 학회의 재료분야 학술활동을 활성화 하며 동시에 재료관련 학회의 공동 학술활동을 추진하여 활발한 학술활동과 일체감을 향상시켜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또 당 학회 내의 12개 분과의 활동을



대한금속·재료학회는 1946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56돌의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3천여명의 회원이 양성한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63년부터 「금속학회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이 학회는 해마다 봄·가을 학술대회를 열어 대회 때 마다 7백여명의 회원이 참석, 5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대한 지원하여 모든 재료 과학자 및 현장 기술자들이 금속 및 재료라는 하나의 학술활동의 장에서 더욱 더 활발한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정이다.

학회 전산업무 개선 주력

두번째의 역점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학계열의 교과과정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요구에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료관련 분야에도 적용되므로 재료관련 교과과정을 각 대학의 재료관련 학과가 출산하여 개선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업은 현재 SCI Expanded에 등재되어 있는 국제적 학술지인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을 조속한



시일 내에 SCI등재 학술지가 되도록 하여 국제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다.

네번째로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 중에 있는 전산화 업무의 완성화 작업이다. 작년부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술대회 발표 신청, 초록 제출, 참

가비 납부 등 제반 학술대회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논문 접수 및 심사, 발간 학술지의 제공 및 회원등록 등 모든 업무가 웹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부터는 이러한 업무가 모두 시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학문 발전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또한 산업체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면 국내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재료 관련 학회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화된 대한금속·재료 학회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 학술회의 후원기관으로서의 참여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제대로 결실을 이루려면 회원 및 이사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협력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학회발전에 대한 기획위원회의 더욱더 활발한 개최와 연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87